

'출산' 고통 남편도 나눈다

'라마즈분만법' 강좌 젊은층 수강 열기

부부가 함께 출산과정에 참여하는 '라마즈 분만법'을 배우고 병원에서 열리는 산모교실에 참여하는 등 여성들만의 일이었다 '출산'에 동참하려는 젊은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차병원에서 열린 '산모대학' 강좌, '임신과 산모건강' 강의엔 부부가 함께 참석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

아내의 권유로 처음 따라 나왔다는 김영수(28·서울 서초구 서초동)씨는 "아내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면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고 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다고 말했다.

차병원·제일병원 등에서 열고 있는 '라마즈 분만법' 강좌도 수강을 신청하는 젊은 부부들이 줄을 서 있으며, 대한 산부인과학회 서울지회가 최근 펴낸 라마즈 분만법 설명 비디오도 각 산부인과를 통해 잘 팔려나가고 있다.

'라마즈 분만법'은 51년 프랑스 산부인과 의사인 라마즈 박사가 개발한 것인데, 부부가 함께 정신·신체운동, 특수호흡 등을 통해 산모의 진통을 분산·완화시켜 편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 의학사상 처음으로 출산 과정에 남편을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80년대 이후 소개되기 시작했지만 별 호응을 받지 못하다 최근 들어 젊은 남편들의 적극적 참여로 새롭게 활기



산모에 심리적 안정감...순산 도움 평등의식 정착...병원시설 개선을

를 띠기 시작했다.

실제 라마즈 분만법 강의를 들은 뒤 지난 2일 아내의 출산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이영상(32·경기도 안산시)씨는 "같이 호흡을 맞추고 힘을 쓰다보니 아이를 함께 낳은 것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아내가 초산으로선 나이가 든 편이고 몸이 약해 단순히 순산을 위해 배우기 시작했지만 아기는 부부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좋아했다.

병원쪽은 "특히 부모와 따로 사는 핵가족·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출산을 부부가 함께 하는 일로 보려는 젊은층의 남녀 평등의식이 표현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도 남편들의 이런 참여 열기를 "산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줘 순산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출산의 고통을 줄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80년대 말부터 직장마다

남편에게 2~4일간의 유급 출산 휴가를 주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 남편들의 출산 동참열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남편의 참여를 꺼리던 임신부들도 남편들이 함께 출산에 참여해 고통을 나누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각 병원 간호사들은 전한다.

지난해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정신과팀이 임신부 1백13명과 산모 1백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임신·출산으로 인한 정서불안 해소지지자'로 '남편'을 꼽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여러명의 산모가 한 방에서 진통·분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부인과 병원시설 형편이 남편들의 적극적 참여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일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노성일씨는 "병원을 찾는 외국인 임신부부들은 1백% 남편들이 출산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병원에 개인별로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남편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미경 기자>

앞으로는 분만실 밖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초조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남편들 모습보다 임신상담에서부터 진통·분만 등 산고까지 함께 나누는 남편들의 모습이 흔해질 것 같다.